

동북아 석유문제 공동대응 논의

한-중-일 석유포럼 9월 21-22일 개최 ... 구매협상력 강화 추진

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북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한국, 중국, 일본이 에너지 위기 공동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석유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2005 동북아석유포럼」이 <동북아 석유산업의 지역협력 증진>을 주제로 9월 21-2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은 2001년 베이징, 2003년 도쿄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와타리 후미아키(渡文明) 新日本石油 회장, 왕티에푸(王天普) Sinopec(중국석유화공) 총재 등 3국의 정유기업 최고경영자(CEO), 석유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3국 대표들은 고유가 지속은 에너지 대소비국이자 원유 수입국인 한-중-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원유 구매 협상력 강화, 비축시설 공동이용, 고유가 장기 대응능력 제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모하메드 알리포 제1석유시장분석실장이 <세계 석유시장의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어서 석유 공급자인 OPEC과 에너지 수요자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전개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5/09/21>